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1면	도립대 배드민턴·볼링부 창단 최윤혁·현명환 초대감독 선임	1
강원도민일보	23면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	2
江原日報	10면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 정기회의	2
강원도민일보	12면	삼척심씨대종회 신년하례식	2
江原日報	10면	홍천군지방행정동우회장 이·취임식	3
江原日報	02면	제도 보완 안하면 '제2의 ELS 손실' 터진다	3
江原日報	온라인	"돌봄 걱정 없다" 화천 커뮤니티센터 개관	4
江原日報	23면	[광고]	5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5
江原日報	21면	[동정]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	5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시 의료대란 확산 피해 최소화 총력전	6
강원도민일보	12면	"수십년 고통" 강릉 돈사 악취 현안 제자리	6
강원도민일보	14면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대상 삼척도 포함해야"	7
강원도민일보	18면	"다시 만나" 내달 양양 아기연어 보내기 축제	7
江原日報	10면	기업혁신파크 선정 기대감 커지는 춘천시	8
江原日報	11면	원주 中企 자금난 심화 대책 시급	8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후평산단 체질 개선 속도낸다	9
강원도민일보	16면	평창군 새 도시브랜드 '별별상상 평창' 개발	9
江原日報	12면	'자연 눈썰매장' 안반데기 겨울 명소 급부상	10
江原日報	14면	'겨울왕국된 태백' 관광객 복적	10
江原日報	01면	춘천 연장 추진 'GTX-B 노선' 다음 달 본격 착공 2030년 ...	11
江原日報	15면	은하수 명소로 뜬 정선타임캡슐공원	12
江原日報	16면	양구군, 이전 기업에 파격 지원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겨울 산 등반 안전대책 만전을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철원 軍 보호구역 해제, 접경지 개발 전환점 되나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증가세 노령 자영업자 생존을 높여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올해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정책, 성공하자면	16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21

도립대 배드민턴·볼링부 창단 최윤혁·현명환 초대감독 선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체육부는 27일 강원도립대학교 세미나실에서 배드민턴, 볼링부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과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 권영만 강릉시 체육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체육회와 강릉시 체육회에서 창단지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도립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단 준비 작업을 해왔다. 볼링부는 청소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 현명환 감독을 선임하고 선수 5명(여자 1·남자 4)으



로 구성됐으며 배드민턴부는 전 국가대표 최윤혁 감독을 선임, 여자 선수 4명과 교수는 “2024년 창단 첫해에 전국체전 4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

해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광래 총장은 “체육부 첫 창단식을 시작으로 볼링, 배드민턴부가 빠른 시기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강원도립대

이정호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23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정기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27일 심영근강원특별자치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강진군다산청림연수원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 02 28 ()
10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 정기회의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회장: 오인철)는 27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이영욱 강원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12



삼척심씨대중회 신년하례식 삼척심씨대중회 신년하례식(회장 심재용)이 27일 강릉농협에서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오섭 도의원을 비롯해 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홍천군지방행정동우회장 이·취임식 홍천군지방행정동우회장이·취임식이 27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홍성기 강원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17대 용문식 회장이 이임하고 18대 신도현 회장이 취임했다.

道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금 5,600억 운용
제도 보완 안하면 '제2의 ELS 손실' 터진다

24개 기관 대부분 기금 재투자
 고수익·고위험 상품 손대기 쉬워
 기금 운용 전문가 고용 등 시급

속보=강원문화재단이 주가연계 증권(ELS)에 혈세로 조성된 기금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게 생겨 파장이 확산(본보 지난 26·27일자 2면 보도)되는 가운데 24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이 5,600억원대 기금 등의 재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기관이 금융상품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2의 ELS 손실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24개 도 출자·출연 기관이 보유한 기금, 자본금 등의 기본

재산은 5,634억원에 달한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2,714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원테크노파크 701억원,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332억원 등이다. 도가 파악한 결과 24개 기관 중 강원문화재단을 제외하고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투자한 기관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익사업을 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기관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을 재투자한다. 예금이 가장 안정적이지만 이자율이 낮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한 ELS 등 투기성 상품에 쉽게 손을 대는 구조다. 결국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도 산하의 A기관은 지난해 18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9억원

의 수익을 올렸다. 이 기관은 내부 기금 운용 규정에 'A등급 이상의 투자적격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뒤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있다.

A기관 관계자는 "수익에만 치우칠 경우 위험성이 있고 안정성만 고려하면 기관의 복지부동으로 보이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놨다"고 말했다.

김시성 도의원은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는 늘고 도의 예산은 줄다 보니 이자가 많은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봐야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기본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기금 운용 전문가를 기관 자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이현정기자

2024 02 27 ()

江原日報

“돌봄 걱정 없다” 화천 커뮤니티센터 개관

화천군,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온종일 초등 돌봄시설 운영
초등 저학년 돌봄 부담 해소, 청소년 학습과 진로탐색 공간
교육복지·돌봄, 주거까지 패키지 지원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국 첫 지자체 주도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27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화천 화천지역 초등 온종일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천군은 27일 오후 2시 화천읍 화천초교 앞에 건립된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화천커뮤니티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돌봄시설이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온종일 돌봄, 초·중·고교생들을 위한 학습과 방과 후 수업 공간 역할을 하게 된다.

화천군은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총 사업비 216억 원을 투입해 이날 시설을 준공했다.

센터는 연면적 5,135㎡ 규모로, 지하 1층에 공연장, 1층에 실내 놀이터와 파티룸, 2층에 돌봄시설과 실내체육관, 창의교육실, 3층에 돌봄시설과 장난감 대여소, 유아 놀이실, 4층에 글로벌 교육실과 진로진학 상담실, 스터디 카페 등을 갖췄다.

시설 운영에는 공무원과 센터장, 돌봄교사 등이 투입되며 학기 중에는 평일 하교 후부터 오후 7시, 방학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군은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6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내면 지역에도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사내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복지와 돌봄, 대규모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이미 군은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를 설치한 데 이어 대학생 재학 기간 등록금 전액, 매월 최대 50만원의 거주비 지원, 세계 100대 대학 유학비 지원 등 최고 수준의 교육지원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안정된 주거에 최고 수준의 교육지원과 돌봄 서비스가 더해 진다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최문순 군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에 두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나아가 교육지원과 돌봄, 주거지원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천커뮤니티센터 개관식에는 한기호 국회의원,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오성배 강원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화천군의원, 이화원 노인회장과 돌봄센터 이용아동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하나은행 K LEAGUE 1 2024

2024 강원FC 홈 개막전

2024. 03. 02 [토] 16:30

강원FC vs 제주UTD

춘천송암스포츠타운

강원특별자치도 high1 RESORT FILA 춘천시 강릉시 H2DREAM!삼척 강원농업연구원 강원군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16
출범및연시총회에참
석한다.



최종수(평
창) 도의
원은 28일
오후 1시
30분 춘천
시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열리는 2024 강원
특별자치도4-H연합
회 제65대 신규임원

江原日報

2024 02 28 ()

21
◇최종수강원특별자치도의
원(평창)은 28일
오후 1시30분 춘
천시 농업인단
체회관에서 열
리는 2024 강원
특별자치도4-H연합회 제65대
신규임원 출범 및 연시총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원주시 의료대란 확산 피해 최소화 총력전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간담회
중증도 적정 의료기관 이송·협력
의료현장 모니터링·관계자 격려



원주시가 최근 의료 대란 전국 확산 및 장기화 조짐에 따라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료 현장 점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시청에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 운영 강화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 의료재난 속, 환자 이송·수용을 협의 하기 위한 자리로 시, 소방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원, 성지병원, 성모병원, 민간이송업체인 한국1339 등이 함께 했다.

원주시는 최근 시청에서 소방서, 세브란스기독병원, 의료원, 성지병원, 성모병원, 민간이송업체인 한국1339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응급의료체계 운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응급환자 신속진료를 위해 중증, 경증, 비응급 환자 등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선정, 이송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세브란스기독병원은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

우선 진료에 주력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어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응 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상황총괄반, 상황 대응반, 인력지원반, 공보지원반 등 총 5개 실무반으로 구성, 보건 의료재난 상황에서 시민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의료현장 모니터링 및 관계자 격려를 통한 소통책도 이어가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지난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과 함께 지역 공공 의료기관인 원주의료원을 찾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강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수십년 고통” 강릉 돈사 악취 현안 제자리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 철회 후
주거환경 개선 대책 논의 부진
시 “지역주민 민원 해결 최선”

수백억원 규모의 강릉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가 무산된 가운데 강릉 지역 곳곳 양돈농가 인근 거주민들이 여전히 악취로 고통받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강동면 모전리 등 지역 내 양돈농가 인근 거주민들에 따르면 돈사 악취 문제는 수십년째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과제 중 하나인데, 지난 2022년 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무산 이후 별다른 대책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무산으로 실망감이 컸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내 해결책 마련이 될 것이라 믿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심밖인

것 같다”며 “악취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돈사이전 등 주거환경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지역 내 양돈농가는 15곳, 총 6만 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주로 강동면과 구정면, 사천, 주문진 등에 분포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9~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받아 사업비 190여억원을 들여 강동면 모

전리산 100일원에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성 부족, 토지 추가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단됐으며, 현재 국비 반납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사업 철회 이후 대체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14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대상 삼척도 포함해야”

도상공회의소협 건의문 발의
“광역 달라 제외 형평성 어긋나”
동등한 보호·지원 대정부 요구

속보=삼척시가 원자력시설주변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안전예산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본지 2월 27일자 12면)과 관련, 삼척상의 등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척상공회의소는 27일 원주에서 열린 ‘제65차 강원특별자치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에서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삼척상의 등은 이번 건의문에서 “삼척은 경북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앞서 이달 초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 이내)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으나, 삼척은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척상의 등은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로 한울원전 등이 산불영향권에 포함됐을 당시 불과 10km 남짓 떨어진 삼척 원덕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처럼 삼척은 원자력시설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 이내)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안전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정부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정민 ko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18

“다시 만나” 내달 양양 아기연어 보내기 축제

8~10일 남대천 다목적광장 일원
먹이 주기·용기 꾸미기 등 다채
방류체험시 ‘고고양양’ 앱 예약

“2024 아기연어 보내기 체험축제”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연어의강’ 양양 남대천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양양문화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생태교육과 체험으로 연어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

해 국내 최대 연어회귀 하천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아기연어 방류용기 꾸미기, 아기연어 먹이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메인 체험행사인 아기연어 방류체험은 총 5회차이며 회차 별로 오는 3월 10일까지 양양군 스마트관광 플랫폼 ‘고고양양’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아기연어 보내기 체험비용은 1인당 5000원이며, 예약자에게는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특히 행사장에는 양양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양양 비치마켓’을 통해 연어와 자연으로 채워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축제기간 중 주말인 9일에는 양양 오일장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병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아기연어 보내기는 양양군 대표 축제인 연어축제의 마중물로 연어에 관한 생태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다”며 “축제에서 참여자가 직접 연어치어를 방류해 보고 남대천과 연어의 생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생활터전을 옮긴 다음 산란기에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종으로 올해 축제기간 동안 방류되는 약 10여만 마리의 어린연어는 남대천과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의 배령해에서 성장해 3~5년 후 다시 모천인 남대천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최훈

2024 02 28 ()

江原日報

10

기업혁신파크 선정 기대감 커지는 춘천시

【춘천】기업도시 시즌 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선정 지역이 차례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춘남에서 열린 15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당진군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선정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경남에서 열린 14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거제시의 기업혁신파크 선정이 발표된 후 두 번째 소식이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선도 사업 지역 잇단 공개 강원 토론회 앞뒤 이목... 범정부 지원계획도 주목

거제시에 이어 당진시까지 선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경쟁 지자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민생 토론회를 향하고 있다. 선정 지자체와 끝까지 각축전을 벌인 춘천시와 포항시는 강원, 경북지역 민생 토론회를 앞뒀다.

특히 당진군 선정 소식과 함

께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가 지원 계획이 발표되자 춘천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도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로 조성돼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또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부처 경계를 넘어 연계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9,36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고, 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함께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이 발표될 경우 연내 SPC 설립을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밟는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앵커 기업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2024 02 28 ()

江原日報

11

원주 中企 자금난 심화 대책 시급

자금지원 사업 첫날 마감 편성액 290억 금세 동나 업체들 “선거 이후 위협” 시 “추경 편성 고려 방침”

【원주】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원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원주시는 기업체의 융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신청 첫날 조기 마감됐다 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운전·시설 자금에 대해 3.0~3.5%의 이차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 상반기 편성액인 290억원이 첫날 155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금세 동이 나버렸다.

그만큼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현장은 아우성이다.

A업체 대표는 “지난해 수출 물동량 증가로 올해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며 “외부 요인에 의한 자금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B업체의 한 임원은 “현 상황도 힘들지만, 4·10 총선 이후가 더욱 두렵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에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숨죽이고 있지만,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원주시는 올 9월께 추가로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더 풀

예정이지만, 중소기업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기업체 이차보전 규모를 통상적인 3.0% 정도에서 최대 6.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호응을 얻었지만, 올해는 국가 재정난 속에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예측되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10

춘천시 후평산단 체질 개선 속도낸다

산자부 차관 방문 활성화 간담회
시설·인프라 확충 구조고도화
바이오 첨단산업 전진기지 구축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7일 후평일반산업단지를 방문,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후평산업단지를 방문, 춘천시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경성 차관은 27일 오후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를 찾았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을 둘러본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거리, 하이테크타워, 행복주택까지 후평산단과 구조고도화 사업장을 잇

따라 둘러봤다. 춘천시는 구조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휴·폐업한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계 공모 중이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다목적 전 시공연이 가능하도록 조성, 뮤지엄과 카페 등이 들어서며 최근 착공했

다. 춘천하이테크타워 역시 산업시설은 91.51% 분양을 완료했으며 행복주택은 입주율 86%로 집계됐다. 정부차원에서 후평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후평일반산업단지의 체질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후평일반산업단지는 1968년 8월 조성

됐다. 소양강댐 준공과 맞물려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단이다.

춘천시는 지어진지 50년이 넘는 후평일반산업단지의 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정보통신·바이오 첨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490억원을 들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내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에 도전, 바이오 중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은 후평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16

평창군 새 도시브랜드 '별별상상 평창' 개발

창의적 생각·무한발전 형상화
'HAPPY700평창' 브랜드 연계
도시 가치 제고 활용방안 모색



평창군이 새로운 군 도시브랜드로 '별별상상 평창' (사진)을 개발, 평창 홍보에 활용한다.

군은 27일 해발 700m 지점이 사람과 동식물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가장 행복한 고도라는 의미인 'HAPPY

700평창' 브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군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차별성있게 전달, 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군 브랜드로 '별별상상 평창'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별별상상 평창'은 '별'이 가득한 평창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무한대로 발전하는 '평창'을 의미한다. '별'은 미탄면 육백마지기의 별과 메밀꽃, 겨울의 눈꽃, 양의털, 평창의 역사와 반짝이는 추억, 평창 군민과 기업의 꿈을, '별별'은 '온갖 다양함이 있는 평창'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상상'은 함께하는 평창, 하나된 평창,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담아 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별별상상 평창' 브

랜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됐고 군은 향후 평창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별별상상 평창'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군수는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을 성공 개최하며 글로벌 도시,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도시브랜드 '별별상상 평창'을 통해 평창의 가치를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2024 02 28 ()

江原日報

12

‘자연 눈썰매장’ 안반데기 겨울 명소 급부상

평일 오전 관광객 수십명 눈썰매 등 즐겨
기존 봄가을 위주서 사계절 관광지 변모



◇27일 강릉 안반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강릉】드넓은 설원이 펼쳐진 강릉 안반데기가 자연 눈썰매장으로 인기를 끌며 겨울철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27일 강릉 왕산면 안반데기 마을은 최근 내린 눈으로 설경이 장관을 이뤘다. 평일 오전임에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온 관광객들이 눈썰매를 타거나 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모(38·경기도 여주)씨는 “풍경도 구경하고 썰매도 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 자녀와 방문했다”며 “눈썰매를 타다 보니 어린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즐겁다”고 말했다. 해발 1,100m의 안반데기 마을은 ‘구름 위 마을’이라는 별명답게 탁 트인 시야가 관광객들

을 불러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자연 눈썰매장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안반데기운유영농조합법인 이 정상에서 운영 중인 ‘운유 쉽터’ 카페에서는 컵라면과 커

피 등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봄가을철 관광지로 유명한 안반데기에 겨울에도 찾아주는 이가 많아 마을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눈썰매 덕에 이 일대가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즐겁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쓰레기 처리 및 사유지 출입 자제를 당부하는 등 관광객들의 에티켓 준수도 강조되고 있다. 류효준·권태명기자

2024 02 28 ()

江原日報

14

‘겨울왕국된 태백’ 관광객 복직

올겨울 226mm 사상 최대 강수량 태백산 등 관광지 특수

면서 상경기가 활기를 띠는 등 부수효과도 발생시켰다.

다. 예년보다는 2배가량 많은 양이다.

【태백】올겨울 폭설로 태백시가 겨울왕국으로 변모하면서 새봄을 앞두고도 설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5일까지 태백에 내린 강수량은 총 226.8mm로 1985년 시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2018~2022년까지 5년간 겨울

철 강수량 평균인 41mm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역대급 폭설이 아름다운 풍광을 선보이자 태백산·함백산 등 주요 관광지는 특수를 맞고 있다. 올 1월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열린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는 58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았다. 이들 방문객은 시내와 주변 상권으로 분산되

그러나 봄을 앞둔 시점에도 폭설이 이어지자 제설작업에 따른 피로도 역시 높은 실정이다. 시는 현재 총 23대의 제설차량을 활용해 지역 내 주요 도로 303.7km에 대한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두문동재, 송이재 등 경사로와 시가지 주요 도로에 뿌려진 제설소금 양은 역대 최대인 6,490톤이

신속화 태백부시장은 “올겨울은 태백에 최대 적설량이 내려 새봄을 앞두고도 관광지 곳곳마다 설경으로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kwh635@

춘천 연장 추진 'GTX-B 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다음 달 본격 착공 2030년 개통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의결

속보=춘천 연장을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본보 1월26일자 1면 등 보도)이 다음 달 중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B 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구간은 인천대 입구에서 출발해 여의도, 용산, 상봉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있는 본 노선이다. 이 가운데 인천대 입구~용산 구간 및 상봉~마석 구간은 수익형 민자사업

(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산~상봉 구간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민자구간 총사업비는 약 4조3,000억원으로, 시행업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다.

GTX-B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재정사업 구간부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춘천 연장은 별도 사업으로 분류되며 진행 방식은 5차 국가철도망 반영 등의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 GTX-B 춘천 연장의 사업비는 4,238억원가량으로, 2030년 동시 개통을 노리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역~춘천은 5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최기영기자

은하수 명소로 뜬 정신타임캡슐공원

【정선】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로 유명했던 정선 신동읍 새비재 타임캡슐공원이 은하수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며 다시 한번 인기를 누리고 있어 화제다.

새비재 타임캡슐공원은 2011년 신동읍 해발 800m 새비재 일원 4만2,870㎡ 부지에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등장한 엽기 소나무를 중심으로 타임캡슐을 묻어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시간이 지나며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 4050 세대들의 수요와 레트로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그때 그 감성을 다시 느끼기 위해 타임캡슐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새비재 타임캡슐공원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인기 끌었던 새비재 공원
최근 SNS서 유명세 ... 인플루언서·관광객 발길 줄이어



◇정선 신동읍 새비재 타임캡슐공원이 은하수를 촬영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며 전국의 유튜브버와 인플루언서, 포토그래퍼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서 육안으로 은하수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하수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은하수를 감상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몰을 이루고 있다.

이른 저녁부터 새벽까지 사진기를 들고 은하수를 촬영하는 수많은 포토그래퍼, 블로거, 유튜브버, 인플루언서가 찾아오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새비재 은하수를 해시태그한 1,

000여건이 넘는 게시물로 넘쳐나고 있다.

타임캡슐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아띠엔솔 카페’는 밤모나이트 화석과 비행접시 착륙 모습을 형상화한 외관 디자인을 비롯해 타임캡슐공원과 수려한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긴 터널 형태의 카페 내부 통유리로 꾸며져 관광객들에게 인기 포토존이 되고 있다.

유영수 군 시설관리공단 이 사장은 “탁 트인 새비재 정상에 위치한 타임캡슐공원이 과거의 감성을 추억하고, 은하수를 사진에 담기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입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시설물을 정비해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특별한 관광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석기자

양구군, 이전 기업에 파격 지원

투자촉진지구 선정

【양구】양구군이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군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 2027년 1월 말까지 각종 보조금 지원 혜택이 늘어나다

보조금 지원 등 대폭 확대

2027년 1월 말까지 혜택
물류비 등도 최대 2억원

고 27일 밝혔다.

양구군에 입주하는 기업은 기존 지원 비율에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에서 양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 20%, 임대료 보조금 35%, 투자보조금 39% 등이 지원된다.

신설·증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총투자 금액의 25%가 지원된다. 이어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으로 총투자 금액의 25%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양구군으로 이전·신설·증설한 기업은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 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1개를 선택해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폐수배출부과금과 물류 보조금은 50%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원

까지이며,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은 설비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 범위에서 1년 동안 최고 2억원이 한도다.

임남재 군 기업지원팀장은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 19

겨울 산 등반 안전대책 만전을

-조난 사고 잇따라 장비 인력 보강 필요

도내산간마다폭설이내려장관을연출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겨울 산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관광 콘텐츠로 인기를 끄니다. 이때문에 강원지역 명산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눈 특수'에 도움을 받습니다. 강원지역 겨울산의 관광 자원화 전망이 밝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산에 조난 사고가 잇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설산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구조 인력을 보강해 등산객들이 안심하고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1m가량의 폭설이 내리자, 등산객들이 설경을 보기 위해 몰렸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태백산과 치악산 등 도내 명산에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설악산의 경우 최근 허리까지 쌓인 눈으로 고지대인 대청봉 탐방로가 통제됐지만, 저지대 등산로는 산행이 가능해 방문객들이 설경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1만 5288명의 등산객이 방문, 하루 평균 3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치악산은 같은 기간 1만 330명이, 태백산은 6498명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폭설에 고립되거나 길을 찾지 못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선자령 일대에서 "길에 눈이 많이 쌓여 등산로를 찾지 못하겠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으로 접수됐습니다. 산악구조대는 1시간 30분 만에 조난당한 등산객 11명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4분쯤에도 선자령 정상에서 30대 여성 등 3명이 폭설에 고립되면서 산악구조대에 의해 약 6시간 만에 발견, 이날 오후 4시 17분쯤 구조됐습니다.

조난 사고가 이어지자 겨울 산 등반객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난 사고의 경우 추운 날씨와 바람 때문에, 산행 중 위급한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안전한 등산로를 안내하고, 방문객들에게 미리 겨울 산 등반 수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비상시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설경을 즐기기 위한 등산객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지자체와 관계당국은 조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산행에 나서는 시민들도 눈과 강풍에 대비해 필수 장비를 지참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2 28 ()

/ 19

철원軍 보호구역 해제, 접경지 개발 전환점 되나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총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1억30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구장 면적(7,140㎡)의 421배에 달하는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지역 총 2,386.48㎢(2024년 1월 기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이번 해제 대상에는 철원 구역 일부만 포함됐다. 철원군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개발의 새로운 물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 25km까지의 구역을 지칭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춘천시의 사북면, 북산면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8,097㎢로 남한 면적의 약 8%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총면적의 약 64%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비접경지역이 번영을 누리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과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 오고 있다. 접경지역과 그 주민들은 국가 안보상 필요

에 따른 다양한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제공되는 국가적 지원은 빈약해 비접경지역은 사실상 국방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구체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와 함께 개발로 이어지려면 국방부와 앞으로 더 세밀한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접경지 개발과 연동돼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

토개발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야권의 비

동송·철원읍 축구장 면적 421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토지 활용 방안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

판이 거세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접경지역 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차원에서는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역 발전의 효용성이 기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개발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 자원의 추가적인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로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활용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2 28 ()

/ 19

증가세 노령 자영업자 생존을 높여야

-생계형 나홀로 운영 다수, 특성 고려한 지원 정책을

전국자영업자중 60세이상이자지하는비중이역대가장 높은36%로 나타났습니다.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통계청의 23년 말 기준 자영업자 568만명 중 60세 이상은 207만명에 달했습니다.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입니다.20년 전인 2003년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60세 이상에 이어 2순위는 50대로 27%를 차지합니다.29세 이하 창업은 3.4%에 불과했습니다.10명 중 6명꼴로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차지하며 대세를 나타냈습니다.중·고령층의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더욱 상승세를 보이는 중·고령층의 자영업에서 중요한 사안은 생존을 곧 지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60세 이상 자영업자가운데 고용직원을 둔 경우는 22%에 불과합니다.10명 중 4명이 나홀로 사장인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기에 지속적인 운영은 절실한 과제입니다.자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감소하기 마련이긴하나 전체 평균 연령에 비해 중고령자의 창업 생존율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에 처방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50세 이후에 창업하는비

중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50세가 넘어 창업할 경우는 생존이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지만,생계 활동을 위해 창업을 해야하는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실제로 늘고있는 50세 이상의 창업과 중고령층의 자영업비중 증가세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영역 기관에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고령 자영업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자영업 중고령자는 젊은층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학계 보고입니다.경제적으로나 사업체 자산 측면에서 더 열악합니다.혼자 운영하는 형태가 많고 건강상태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연령적 특징과 사업체 특성 등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져 지원해야 합니다.일례로 창업 경험이 있다고 해서 창업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창업 직전의 업종이 현업종과 같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직과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생계형의 나홀로 운영에 따른 건강상태 등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 02 28 ()

/ 19

올해부터 시행되는 '늘봄학교' 정책, 성공하자면

초등학생을 방과 후에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맞벌이 부모의 최대 고민은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문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는 돌봄을 걱정하지 않았으나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학원 뺑뺑이' 돌리는 실정이다. 이런 학부모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나온 게 늘봄학교 정책이다. 희망하는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도 입한다. 내년에 초교 1~2년생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넓힌다. 2025년 시행하려던 것을 1년을 앞당긴 것으로 방과 후 수업에다 저녁 식사까지 공교육에서 책임진다니 학부모들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와 행정직원들은 업무량 증가를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강원지역 교직원 단체 회원들은 지난 26일 늘봄학교 프로그램 준비 및 늘봄교실을 점검하기 위해 춘천 후평초교를 찾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늘봄학교가 강행되고 있고 현장 교사들에게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고 항의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도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기존 행정실, 교무실 외에 '늘봄지원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367개 초등학교 중 늘봄 전담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정되는 학교는 6개에 불과해 360여개 초교는 기존 인력이 늘봄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늘봄교실을 운영할 공간이 부족하고 강사 구하기도 쉽지 않아 대체 강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 돌봄 수업으로 대체될 것을 염려하는 방과 후 교사들도 있다.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늘봄학교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 과제다. 따라서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초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늘봄학교가 안착할 수 있다. 업무 분담도 명확해야 한다.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국가가 대신 돌보겠다는 좋은 취지도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모두에게 짐이고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지자체,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강원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